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99



Contents



※ 2025.10.02(목) 기준(대상 기간 : 2025.09.25~2025.10.01.)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한중일, 탄소중립 위해 환경산업 원탁회의 (2025.09.25)	1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탄소중립] 송미령 장관 "농업·농촌 탄소중립, 더는 미룰 수 없어" (2025.09.30)	1
–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코르크 러닝길'… "달리는 길이 곧 탄소중립" (2025.09.25)	2
– 충주시, 탄소중립그린도시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2025.09.25)	2
– 의왕시의회, 탄소중립 실천 해법 모색 (2025.09.25)	3
– "그린수소와 분산에너지로 탄소중립 구현"…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막 (2025.09.25)	3
– 동래구 새마을지도자 안락1동협의회, '탄소중립 실천 화단 가꾸기' 실시 (2025.09.25)	4
– [탄소중립경제과⑥]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공론화 나선다 (2025.09.25)	4
■ AI 분야	5
– 이 대통령 "APEC서 'AI 미래비전' 공유" (2025.09.25)	5
– 외국 기업인 만남 김정관 산업부 장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 확대 당부 (2025.09.25)	5
– 춘천, AI 자율주행 챔피언십으로 미래를 달린다 (2025.09.25)	6

- 홍성군, KAIST와 혁신 기술로 미래산업 청사진 제시 (2025.09.25) 6
- 경기도, AI 기술로 교통과 정보 접근성 문제 해결 (2025.09.25) 7
- 나주시, '2025 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개최 총력...AI 첨단 농업기술 한눈에
(2025.09.25) 7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8

■ 탄소중립 분야 8

- 석유공사-지자연, 국내대륙붕 탐사·탄소중립 협력 (2025.09.25) 8
-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지자체 공무원 대상 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 개최 (2025.09.25) · 8
- 진주교육청·시·탄소중립지원센터 '그린 투게더' 개최 (2025.09.25) 9
- 경기연구원, 전국 지자체 지역주도 탄소중립 정책 성과 미미 (2025.09.25) 9

■ AI 분야 10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화성산업진흥원, AI 중소기업 지원 맞손 (2025.09.25) 10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0

■ 탄소중립 분야 10

- 인생의 행운 '로또'는 단 한명, '탄소중립'은 전 인류의 당첨! (2025.09.25) 10
- "AI發 수요·글로벌 탄소중립 해상풍력 비중 2050년 25%" (2025.09.25) 11

- 한전KPS, 필리핀과 탄소중립 발전 프로젝트 추진 (2025.09.25) 11
- 대상, 농어촌상생기금으로 ESG 실천...탄소중립까지 앞장 (2025.09.29) 12
- 호서대-아산시, 'ESG 혁신리더' 출범...탄소중립 스마트시티 선도 (2025.09.25) 12

■ AI 분야 13

- 알리익스프레스, 지재권 보호 강화 성과 발표..."AI·정부 협력으로 위조상품 근절 속도" (2025.09.25) 13
- 누보톤, AI MCU 'M55M1' 공개... 연산 성능 100배 ↑ (2025.09.25) 13
- "AI 에이전트 결제 시대, 스테이블 코인이 해법"...삼성·페이팔·마스터카드, 차별화 전략 공개 (2025.09.25) 14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한중일, 탄소중립 위해 환경산업 원탁회의 (2025.09.25) - 환경부가 26일 중국 옌타이시에서 한중일 정부 관계자와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10회 한중일 환경산업 원탁회의 개최. 제26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의 부대행사로 3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전환, 탄소중립 주제로 논의 - 녹색금융, 순환경제, ESG 정책 및 실천 사례, 환경기술 국제협력 등 4가지 세부 의제에 관한 발표와 토론 진행. 이옥수 김앤장 센터장은 지속가능채권 발행 위축에도 기후기술 투자가 2배 이상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과 전환금융 지침서 도입이 핵심 정책이라고 발표 예정 - 이유진 LG화학 담당이 순환경제 혁신사례, 김연주 한국수자원공사 대리가 물 기반 친환경 경영 실천 방안, 장원석 효성중공업 부장이 중국 상해전기와 추진하는 해상풍력 국제협력 사례 발표. 정은혜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3국이 구체적 실행 사례 공유로 동북아 지역이 세계 탄소중립 전환 선도 의지 표명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탄소중립] 송미령 장관 "농업·농촌 탄소중립, 더는 미룰 수 없어" (2025.09.30)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탄소중립, 농업 분야 재생에너지에서 해법 찾는다' 포럼 서면축사에서 농업·농촌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 위성곤 의원 주최, 아시아 투데이 주관으로 개최 - 송 장관은 폭염·폭우·가뭄 등 이상기후 빈번으로 기후위기와 식량안보가 전 지구적 현안으로 부상했으며 식량주권을 지키면서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전략적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언급.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22.5% 감축 목표로 정책 추진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경종·축산 저탄소 프로그램, 스마트농업 확산 등 저탄소 구조 전환 가속화. 영농형 태양광 등 농업과 재생에너지 결합 모델 도입으로 식량안보와 에너지 전환 동시 달성 노력 중이며 국회, 학계, 산업계, 농업인, 국민 모두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 강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코르크 러닝길'... "달리는 길이 곧 탄소중립" (2025.09.25) -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코르크 러닝트랙 및 산책로 조성사업이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및 기후위기 대응형 탄소중립 실천 모델로 주목. 천연 코르크를 활용한 트랙은 무릎 부담 감소와 미끄럼 방지로 건강한 보행환경 제공하며 생산부터 폐기까지 탄소배출 최소화 - 서울어린이대공원 트랙(4,313㎡)과 수원월드컵경기장 트랙(2,241㎡)이 대표 사례로 코르크 포장은 우레탄·고무재 대비 부드러운 탄성력과 충격흡수력으로 관절 부담 경감. 서울어린이대공원 트랙의 경우 고무 대비 약 286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로 99% 탄소 배출 절감 - 코르크는 여름철 표면 온도가 고무보다 10~15도 낮게 유지되고 겨울철 해빙력이 우수해 사계절 사용 적합. 100% 재활용 가능한 순환형 자원으로 내구연한 후 분쇄해 놀이터 하부재로 재사용 가능하며 와인병 코르크 마개 재활용 사례도 존재
	□ 충주시, 탄소중립그린도시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2025.09.25) - 충주시가 25일 서충주도서관에서 탄소중립그린도시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설명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지역구 도의원·시의원, 자문위원,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해 시행계획 수립 당시와 변경된 사업 내용과 추진 일정 논의 - 탄소중립그린도시 사업은 에너지전환과 흡수원 확대 등 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탄소중립 모델 조성 사업으로 서충주 지역 중앙공원과 연결녹지 조성·정비를 통한 이동 여건 개선과 주민 공간 확대에 거주 편의 증진 기대 - 10월 LED 가로등 교체 공사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중 중앙공원 조성 및 연결녹지 정비 공사 착공 예정. 내년 상반기 수소충전소 구축, 빗물저류조 설치 등 기반시설 구축과 시민 대상 사회 전환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질적 탄소중립 실현 추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의왕시의회, 탄소중립 실천 해법 모색 (2025.09.25) -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연구모임'이 24일 '의왕시 온실가스 발생 현황 및 플라스틱 규제 동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중간보고회 후 재활용센터 직접 방문해 플라스틱 수거·처리 과정 확인으로 실효성 제고 - 보고서는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도입, 지역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 방안, 태양광·지열 활용 RE100 사업, 유희부지 기반 시민 참여 모델 등 다양한 대책 제시. 무인 플라스틱 회수기 설치, 타 지자체 청년 창업 성공사례 등 단기간 적용 가능한 실질적 모델도 논의 - 김태홍 대표의원은 의왕시 취약점 명확 진단과 실현 가능한 개선책 제시 필요성 강조, 서창수 의원은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네프론 도입 제안, 한채훈 의원은 10년째 개정 안 된 환경기본조례에 연구 결과 반영 주문. 10월 중 최종 결과 시민 공개 예정
	□ "그린수소와 분산에너지로 탄소중립 구현"...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막 (2025.09.25) - 제주도가 2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그린수소와 분산에너지로 여는 K-탄소중립 이니셔티브' 주제로 2025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오영훈 지사는 탄소중립 해법은 그린수소와 분산에너지에 있으며 제주는 국내 최초 그린수소 상용화 생태계 구축으로 가능성 입증했다고 강조 -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사회 신속 전환, ESS와 V2G 활용 유연성 자원 확충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저탄소 중앙계약시장과 실시간 전력 거래시장 등 혁신적 제도 도입, 가파도 탄소중립 모델과 RE100 융복합 산업을 통한 세계적 선도모델 구축 등 4가지 추진 방향 제시 - 산업부와 제주도는 2017년부터 250kW급 수전해 실증, 2020~2024년 행원 3.3MW 수전해 단지 구축 완료, 2027년까지 북촌 10.9MW 수전해 단지 구축 진행. 행원단지는 하루 200kg 수소 생산해 수소버스 17대와 승용차에 공급하며 재생에너지 기반 청정수소 생태계 구현 가능성 제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동래구 새마을지도자 안락1동협의회, '탄소중립 실천 화단 가꾸기' 실시 (2025.09.25) - 부산 동래구 새마을지도자 안락1동협의회가 20일 관내 공원에서 환경정비와 화단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화단 가꾸기 조성사업' 실시.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한 동래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되며 용산할머니경로당 일대 청소와 화단 조성 - 최진협 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안락1동협의회가 매년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함. 박균환 안락1동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깨끗한 안락1동 만들기에 힘쓴 협의회에 감사 표명 -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환경정비 활동으로 탄소중립 실천과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소규모 화단 조성이지만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 개선과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모델 구축
지자체	□ [탄소중립경제과⑥]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공론화 나선다 (2025.09.25) - 충남도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이재관 의원 등 12명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력자립률 높은 충남(207%), 인천(191%), 울산(103%), 강원(156%), 전남(213%), 경북(228%), 경남(125%) 등 7개 광역시도가 공동 주관 - 전영환 홍익대 교수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방향과 기대효과 발표로 전력자립률 지역 간 격차와 현행 요금 체계 한계를 짚고 차등요금제 도입의 형평성 제고와 분산에너지 확산 효과 제시.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이 전국 전력생산 1위로 생산 전력 절반 이상을 타지역에 공급한다고 강조 - 산업부는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기준을 기존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분할에서 추가 세분화 검토 중이며 2026년부터 시행 계획. 충남도 등 5개 시도는 지난 4월 전력자립률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 있음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이 대통령 "APEC서 'AI 미래비전' 공유" (2025.09.25)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다음달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 공유 계획 발표. AI시대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면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할 것이라며 능동적 대응 필요성 강조 - 이 대통령은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접견에서 대북 정책 논의하며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골자의 'END 구상' 설명. 한반도 평화와 안보가 국제사회 평화·안보와 연계돼 있으며 갈등과 대립 넘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 지원 당부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APEC 정상회의 계기로 타결 희망하며 그전에라도 점점 찾으면 타결 가능한 입장으로 협상 임하고 있다고 설명. 우리 정부가 합리적 입장 취하고 있으며 양측 견해차 크지만 개인적으로 점점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
	☐ 외국 기업인 만난 김정관 산업부 장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 확대 당부 (2025.09.25)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취임 후 처음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 개최. 암참, ECCK, SJC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들이 참석해 외국인 투자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청취와 소통 - 김 장관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외투기업 투자확대 당부하며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지원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외투기업 R&D 예산 확대 등 지원 대책 적극 추진 약속. 성장과 투자 핵심인 기업 경영활동 지원과 예측가능한 기업환경 조성 중요성 강조 - 주요 외국상의 대표들은 노조법에 대한 우려 표명하며 법이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보완책 요청. 규제 완화, AI 및 미래 모빌리티 등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제안에 김 장관은 외투기업 등 의견 적극 수렴해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합리적 대안 마련 약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춘천, AI 자율주행 챔피언십으로 미래를 달린다 (2025.09.25) - 춘천시가 주최하고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 아마존웹서비스가 후원하는 2025 춘천 AWS 딥레이서 챔피언십 결승전이 28일 오전 10시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개최. AWS가 개발한 18분의 1 크기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인 딥레이서를 활용한 AI와 레이싱 결합 경진대회로 클라우드 크레딧과 기술 지원 제공 - 결승 진출 6개 팀이 총 상금 750만원을 두고 경쟁하며 대상 수상팀에게는 250만원 상금과 일본 도쿄 IREX 국제로봇전시회 참관 기회 제공. 대회 전 AI 융합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참가자 기초 역량 강화, 학부모와 함께하는 AI 자율주행 캠프로 초등학생과 학부모에게 자율주행 자동차 조립과 코딩 실습 기회 제공 - 춘천시는 매년 챔피언십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연계 운영으로 AI 인재 양성과 자율주행 기술 저변 확대 추진. 대회 종료 후에도 초중등생 및 시민 대상 다양한 AI 교육 프로그램 지속 추진 계획으로 지역사회 AI 기술 발전과 인재 양성 기여 예상
	□ 홍성군, KAIST와 혁신 기술로 미래산업 청사진 제시 (2025.09.25) - 홍성군이 23일 내포지식산업센터에서 KAIST 모빌리티 연구소와 함께 이동형 ESS, 자율주행 로봇, 디지털트윈 등 혁신 기술 시연회 개최. 이용록 홍성군수와 전형식도 정무부지사, 도·군의원, 유관기관, 입주기업과 주민 등 150여명 참석한 가운데 6개 주요 기술 공개 - 이동형 ESS는 KAIST 이윤구 교수와 퓨처이브이, 에코캡, 한양전공, 업택이 공동 개발 중인 전력 플랫폼으로 재난·정전 상황에서도 안정적 전력 공급 가능. 내포 디지털트윈 플랫폼은 실제 내포신도시를 가상공간에 구현해 교통량 변화, 재난 대피 시뮬레이션, 환경 모니터링 가능하며 자율차 원격주행 기술로 대전 운전자가 내포 셔틀버스 원격 제어 - 실내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는 실제 도로 환경을 15:1 비율로 축소·재현해 다양한 자율주행 실험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 예정. 이용록 군수는 KAIST 모빌리티 연구소와 협력 강화하고 지역 기업과 함께 산학연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첨단기술이 군민 삶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계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경기도, AI 기술로 교통과 정보 접근성 문제 해결 (2025.09.25)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AI 챌린지 프로그램 2차 실증과제로 안양시의 'AI 대화형 스마트 버스정보 시스템 구축'과 화성산업진흥원의 'AI 점자 솔루션으로 여는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혁신' 선정. AI 기술 보유 기업과 경기도 내 시군 및 공공기관 연결해 실제 현장 기술 실증 기회 제공 - 안양시는 AI 음성 대화 기반 길 안내 키오스크 도입으로 시민 맞춤형 교통 및 생활 정보 실시간 제공. 모바일 이어보기 서비스로 휴대전화 확인 가능하며 최적 경로 안내, 환승 정보, 감성형 모션 아바타, 민원 응대 등 다양한 기능과 직관적 디자인, 고성능 음성인식 기술, 다국어 지원으로 교통약자와 외국인 이용 편의 - 화성산업진흥원은 AI 점자 솔루션 개발로 수일에서 수개월 소요되던 점자 문서 출력을 5분 이내로 단축. 복잡한 문서 구조도 AI가 정확한 점자 언어로 변환해 공공 민원 안내문 등 실시간 정보 제공 가능. 1차 과제는 11월, 2차 과제는 내년 5월 완료 예정으로 AI 기술 통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 정보 접근성 개선 기여
	□ 나주시, '2025 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개최 총력...AI 첨단 농업기술 한눈에 (2025.09.25) - 나주시가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산포면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2025 국제농업박람회 막바지 준비.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 주제로 AI 농업기술 전시와 미래 농업 시연, 글로벌 수출·투자 상담회, 농식품 판매,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 13개 업체 참여 농특산물 가공식품 홍보부스와 나주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홍보관 운영으로 농업인 가공 인프라와 식품산업 발전 가능성 소개. 나주밥상 미식관에서는 나주곰탕, 홍어, 장어 등 나주 대표 음식을 10개 지정업소가 선보이며 입장권 소지자는 지정 음식점 10%, 황포돛배 50%, 목사내아숙박 30% 할인 혜택 - 시는 개막 전까지 꽃탑 설치, 가로경관 정비, 가로등 점검 등 도시환경 정비로 관람객 편의 준비. 운병태 시장은 국제농업박람회가 농업의 미래 체험 장이자 같은 기간 열리는 2025 전라남도 정원페스티벌과 함께 나주의 매력을 전국에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석유공사-지자연, 국내대륙붕 탐사·탄소중립 협력 (2025.09.25) - 한국석유공사가 24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석유자원탐사 및 탄소중립 분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양 기관은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협약을 통해 자원개발분야 공동연구와 인력양성 협력을 확대해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국내 대륙붕 석유자원 탐사와 탄소중립 분야 협력 강화 - 협약 내용은 물리탐사 연구선 등 탐사·분석장비 공동활용, 석유자원 탐사와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확보 관련 공동연구, 해양지질정보 구축과 지질·지구물리 연구 활성화, 국내 자원개발 생태계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포함 -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국가적 과제인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자립화와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석유공사는 국내 대륙붕 전역 자원탐사로 해양과학조사 기반 확충과 저탄소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내 학계·연구계와 협력 강화 계획
	□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지자체 공무원 대상 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 개최 (2025.09.25)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25일 대구 엑스코 회의실에서 '2025 지역사회 에너지·탄소중립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2022년) 이후 협의회와 함께 지방정부 에너지·탄소중립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운영 - 김서용 아주대 교수의 '새 정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국정과제와 지자체 역할', 이정익 카이스트 교수의 'SMR 기술 동향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활용', 정유경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박사의 '탄소중립 이행 우수사례' 등 전문가 강연과 참가자 분임토의로 지역별 탄소중립 실행 과제 발굴 - 이주수 재단 대표이사는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할 때 에너지 대전환이 일자리·교육·복지 등 지역 전반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 프로그램은 대구를 시작으로 11월 14일 대전, 11월 28일 서울에서 계속 진행 예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진주교육청·시·탄소중립지원센터 '그린 투게더' 개최 (2025.09.25) - 진주교육지원청과 진주시, 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가 공동 기획한 '그린 투게더' 기후 행동 행사가 23일 철도문화공원에서 초등학생과 교직원, 지역민 등 4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생태전환 교육 축제로 개최됨 - 행사에서 학생들의 사물놀리와 노래 공연에 이어 경상국립대 교수진과 진주시 환경산림국장이 참여한 토크 콘서트를 통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 탄소중립 OX 퀴즈대회와 약속 카드 만들기 활동으로 배움을 실천으로 연결 - 지역 교육기관과 행정기관, 시민사회가 협력해 학생과 시민들의 기후위기 인식을 높이고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직접 기후 행동의 중요성을 느끼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교육의 장으로 운영됨
지방기관	□ 경기연구원, 전국 지자체 지역주도 탄소중립 정책 성과 미미 (2025.09.25) -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온실가스 배출량 7억2천806만t 중 경기도가 1억2천648만t으로 17%를 차지해 가장 많은 배출량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됨. 지자체별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를 설정했으나 지역 여건 고려 없이 국가 목표를 단순 반영하는 수준에 그침 - 지자체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정책 목표와 실행 간 괴리 발생. 중앙정부 보조금 의존도가 높아 국비 감소 시 사업 물량이 줄어들어 경기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024년 목표달성률이 65.1%에 머무는 등 성과 미미 - 경기연구원은 관리 권한 배출량 범위 재정의와 지역별 경제구조 및 에너지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 필요성 제언. 국가기후대응기금 일부를 지자체 기금으로 전환해 탄소중립 재정 자율성 확대와 지역 고유 여건에 맞는 감축 실행계획 수립을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 강조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화성산업진흥원, AI 중소기업 지원 맞손 (2025.09.25)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화성산업진흥원이 23일 AI산업 기반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AI 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 기관의 긴밀하고 전략적 협력 체계 구축으로 AI산업 중심 경기·화성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과 중소기업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대상 융합기술 적용 컨설팅, 기술 검증 연계 지원, 기술사업화 모색 노력, 중소기업 공동기획연구과제 수행 등 협력. 융기원은 도내 AI 기업에 GPU 등 컴퓨팅 자원 지원하는 'AI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지원 '경기 AI+X 아카데미 사업' 추진 - 화성산업진흥원은 지자체 최초 AI EXPO 'MARS 2025'에 이어 AI기술 활용으로 사회문제 해결하는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 수행 예정. 양 기관은 AI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산업 생태계 혁신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인생의 행운 '로또'는 단 한명, '탄소중립'은 전 인류의 당첨! (2025.09.25) - 장대식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이사장은 로또가 한 명의 삶을 바꾸는 것과 달리 탄소중립은 모든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확실한 당첨이라고 강조. 기후위기가 예측을 앞서는 속도로 진행되며 폭염, 산불, 가뭄 등 자연이 보내는 신호가 명확해 행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동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제시 - 탄소중립은 단순한 이산화탄소 감축이 아닌 우리가 선택할 삶과 후손에게 물려줄 세상에 대한 가치 선언이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정의로운 전환의 기회. 기업의 탈탄소 혁신, 금융의 ESG 기준, 시민의 실천을 유도하는 기후 거버넌스 구축이 성패를 좌우 -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은 '좋은 에너지, 좋은 기후환경, 더 좋은 세상'을 기치로 시민교육, 기업 연계, 지자체 협력,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전개. 탄소중립은 누군가의 몫이 아닌 모두의 책임으로 함께 결단하고 실천할 때 복권보다 값진 행운이 찾아온다는 메시지 전달
	□ "AI융 수요 · 글로벌 탄소중립 해상풍력 비중 2050년 25%" (2025.09.25) - 박승기 LS전선 상무가 해럴드 기업포럼 2025에서 AI 데이터센터 가동에는 해상풍력 같은 전력망 확충이 필수이며 해상 그리드 확대에 HVDC 해저케이블 수요 증가 전망. 유럽 해상풍력 시장은 2030년 127GW에서 2050년 640GW, 아시아는 45GW에서 312GW까지 성장 예상 - 기후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탄소중립과 AI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글로벌 발전 시장에서 해상풍력 비중이 2021년 5%에서 2050년 25%까지 증가 전망. 정부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 전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 계획 - HVDC는 40km 이상 송전 시 교류 대비 경제적이고 주파수가 다른 전력 계통 간 연결 가능한 장점 보유. LS전선은 약 1조원을 투자해 미국에 현지 최대 규모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
	□ 한전KPS, 필리핀과 탄소중립 발전 프로젝트 추진 (2025.09.25) - 한전KPS가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파나시아 에너지, GE 베르노바와 리마이 복합발전소 연료전환 및 성능개선 협력을 위한 3자 양해각서 체결. 기존 경유 사용 리마이 발전소를 천연가스 기반으로 전환해 경유 대비 약 40~60% 비용 절감 목표 - 발전단가 감소로 리마이 발전소 가동률 개선과 필리핀 내 발전소 급전 순위 향상, 매출 향상에 따른 발주처 재무구조 개선, 친환경 연료로 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물질 배출 감소 목표, 가스터빈 연료전환 사업 협력과 향후 발전소 수명연장 및 성능개선 프로젝트까지 협력 범위 확대 - 한전KPS는 13년간 파나시아 에너지와 23건 프로젝트 성공 수행 경험 보유. 김홍연 사장은 단순 연료전환을 넘어 발전소 안정적 운영, 성능 개선, 수명 연장, 친환경 가치 실현을 동시에 달성하는 미래형 프로젝트로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 선도 의지 표명 □ 대상, 농어촌상생기금으로 ESG 실천...탄소중립까지 앞장 (2025.09.29) - 대상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지역사회 나눔부터 탄소중립 설비 지원까지 다양한 활동 전개. 2018년부터 매년 기금 출연하며 푸드뱅크와 협력해 청정원·종가 브랜드 제품을 취약계층에 제공, 최근 3년간 장류·조미료 등 식품 약 68만개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사업 동참해 시설원에 농가에 고효율 냉방설비인 지열·공기열 히트펌프 설치 지원. 각 농가당 연간 500톤 이상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냉난방비 절감, 전기 사용량 감소, 생육기간 확대로 매출 증가 등 농가 경영 개선 기대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FTA 비준 당시 농어촌·농어업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농어촌 간 상생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17년부터 민간 기업 자발적 참여로 조성. 대상은 기업과 농촌이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 표명
대학교	□ 호서대-아산시, 'ESG 혁신리더' 출범...탄소중립 스마트시티 선도 (2025.09.25) - 호서대학교와 아산시가 24일 호서대 KTX캠퍼스에서 250여명의 시민과 ESG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ESG 혁신리더 발대식' 개최. ESG-E 전문가 자격증 수여, 아산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성과 발표, 한국환경공단 강연, ESG 혁신리더 위촉식 등으로 진행됨 - 호서대 지능형 순찰로봇 시연과 어린이 ESG 발대식, 플로깅 캠페인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실천! ESG 혁신! AI 스마트시티!' 선언문 낭독 퍼포먼스로 생활 속 ESG 실천 확산 다짐 - 김홍근 호서대 대외협력본부장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맞춰 아산시와 함께 K-ESG 2.0 실행 모델을 선도하겠다고 밝힘. 교육·연구·산학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 모델 구축과 지역사회 ESG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알리익스프레스, 지재권 보호 강화 성과 발표..."AI·정부 협력으로 위조상품 근절 속도" (2025.09.25) - 알리익스프레스가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디지털 커머스 그룹의 2025 지식재산권 보호 연례 보고서를 통해 AI 기술 활용으로 지재권 침해 게시물 선제 차단 비율을 전년 대비 50% 향상. 자체 차단 건수는 권리자 신고 삭제 건수보다 4.5배 많았으며 이 중 86%는 판매 시작 전 제거로 지재권 침해 우려 게시물의 97% 사전 차단 - 권리자 신고 처리 속도 개선으로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전용 신고 플랫폼 접수 건의 95%가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 처리.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MOU 체결 후 위조상품유통방지협의회 참여, 관세청과 판매 중단 자율조치 및 실태조사 협력,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통관 단계 압수 물품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도입 - 대한화장품협회와 K-뷰티 글로벌 점프 비즈니스 & IP 전략 컨퍼런스 개최, 중소기업 성공 지원 센터 운영으로 지재권 보호 자료와 상담 서비스 제공. 홍익대학교와 공동 진행한 지식재산권 보호 슬로건 디자인 공모전에서 'Fake? Can't Relate' 선정으로 MZ세대 감각의 위조상품 거부 의식 확산
민간기업	□ 누보톤, AI MCU 'M55M1' 공개... 연산 성능 100배 ↑ (2025.09.25) - 대만 반도체 기업 누보톤 테크놀로지가 24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 열고 차세대 AI MCU '누마이크로 M55M1' 공개. M55M1 AI MCU의 연산 성능은 110 GOPS(초당 1100억회 연산)로 기존 고성능 MCU가 1GHz에서 약 1 GOPS 수준인 것과 비교해 최대 100배 향상된 AI 추론 성능 제공 - 크리스 세 누보톤 마이크로컨트롤러 사업부 매니저는 압도적인 연산 능력과 단순한 개발 환경이 차별성이라고 강조. Arm Cortex 기반 CPU와 u55 AI 코어 탑재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Arm 에코시스템과 완벽 호환되며 기존 MCU 환경과 유사한 방식으로 AI 애플리케이션 구현 가능해 영상 인식·음성 처리 등 대규모 AI 연산 실시간 처리 - 이한규 누보톤 코리아 상무는 한국이 삼성·LG 등 주요 기업들이 포진한 AI MCU 시장의 핵심 시장으로 해외보다 빠르게 기술 구현하는 하이 포지셔닝 마켓이라고 평가. 누보톤코리아는 국내 고객사들과 AI MCU 적용 협의 진행 중이며 한국 시장에서 AI 활용 확대와 협력사 확보에 주력할 계획 □ "AI 에이전트 결제 시대, 스테이블 코인이 해법"…삼성·페이팔·마스터카드, 차별화 전략 공개 (2025.09.25) - 24일 서울 KBW 2025에서 삼성전자, 페이팔, 마스터카드가 280조원 규모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의 차별화 전략 공개. 아쇼크 벤카테스와란 마스터카드 부사장은 아시아 수출입 시장 중심으로 프로그래머블 결제 방식이 크로스보더 거래 혁신 가능성 제시하며 100년 이상 레거시 시스템 보유 금융기관들의 변화 수용 시간 필요 지적 - 앨런 듀 페이팔 파트너는 AI 에이전트간 자동 결제 상거래인 '에이전트 커머스' 패러다임에 주목하며 소액결제나 실시간 데이터 결제 시 비용과 지연시간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유망한 솔루션이라고 강조. 에이전트 자체의 AI 네이티브 아이덴티티와 서로 인증하고 활동 검증할 수 있는 기록 시스템 중요성 지적 - 백원석 삼성전자 그룹장은 해외 여행객 현지 결제 어려움 해결이 가장 흥미로운 활용 사례라며 삼성 월렛에 신용카드, 신분증, 스테이블코인 함께 담아 물리적 지갑 대체 비전 제시. 신용카드 작동 안 하는 상황에서도 프로그래머블 머니인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사용자 경험 창출 전망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